옥중의 아들에게

김 윤 식

*김윤식님은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연세대생 김학민의 부친으로 1974년 구속자가족협의회를 조직, 부회장으로 석방운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2차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1995년에 노환으로 별세했다.

학민아. 네가 연행되어 간 계절은 할미꽃 피는 시절이었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도 지났구나. 그리고 해가 바뀌었구나. 성탄 이브에 명동 거리에 나가 보니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며 거리를 누비고 다니더라. 모두 다 즐겁기만 한 모양이더라. 이렇게 기쁘기만 한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만은 슬픔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나는 답답하기만 한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만 하였단다.

네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어머니 즐겁게 하려고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왔겠지. 너의 학교 여학생회장이 손수 뜨개질한 털양말과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단다. 이 카네이션을 너에게 전달하였으면 오죽이나 좋겠니. 행여나 연말에 풀려 나올까 하고 주인없는 너의 책상 위에 꽂고 자꾸만 자꾸만 물을 주어도 시들어가기만 하는구나. 너의 피어보지도 못한 꽃망울도 어두침침한 마루방에서 그대로 시들어가기만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시며 성자이신 지학순 주교님의 「양심선언」, 모든 민주인사와 너희들 학생들의 정의의 울부짖음은 전세계에 메아리쳐 미주로부터 구주 제국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이 땅에서 구속자들을 도와주었다고 강제 추방당한 오글 목사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권과 억울한 너희들의 구금생활을 소개하고 계시단다.

국내에서는 방방곡곡에서 신교·구교 할것없이, 혹은 합동으로, 혹은 개별로 매일같이 기도회, 강연회를 열고 너희들의 석방과 민주회복을 하느님께 간구하고 사회에 호소하고 있단다. 신구교회에서 성금을 모아 구속자가족협의회에 보내온 돈만도 1백만원이 넘는다. 그 중에는 단식을 해서 모은 것도, 어린 학생들의 정성어린 모금도 있단다. 익명

의 주부가 보내주신 돈도 버선도 있단다. 서독에 가 있는 간호원, 광부들이 많은 돈을 보내왔다. 일본의 사회단체에서도, 캐나다의 교포들도 내의를 부쳐왔다.

그래서 파탄된 집안도 그런대로 꾸려나가며 옥바라지를 하고 있단다. 네가 걱정하던 학생들에게도 넉넉치는 못하지만 구원의 손길은 닿아 있다.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안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비겁하지 말라. 굳은 의지로 고난을 극복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일전에 너를 보고 온 후 동상이 걱정되어 남대문시장으로 남자용 덧버선을 사러 갔더니, 여자용뿐이어서 이 집 저 집 구하러 다녔지. 어느 가게 아주머니가 하필 남자용이냐고 묻기에 너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자기 아들도 연세대를 졸업하였다면서 돈도 받지 않고 두 켤레를 싸주더라. 주인도, 여점원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버지는 이 수많은 신세를 죽을 때까지 못갚을 것같으니 네가 나와서 두고두고 갚아다오.

3월 말에 졸업도 몇달 남지 않았으니 아무 데도 참견하지 않고 안양 행촌목장에 가서 공부나 힘껏 해보겠다고 책보따리 짊어지고 떠나던 너를 믿었기에, 기대했기에 희망에 가득찬 마음으로 전송하였더니 네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4월 8일이었다.

나는 미친듯이 돌아다녀 보았지. 학교에도 가보고, 한기춘 박사님도 온갖 노력을 다하여 보셨단다. 4월 25일 '민청학련사건'이라고 발표가 있자 동리 사람이나 고향 분이나 아버지 친구들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눈치더라. 네가 빨갱이할 사람은 아니라고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더욱더욱 떠들고 다녔지! 아버지가 밉다고 자식까지 구속하느냐고, 어느 기관에서 유치하고 있는지 신원의 소재라도 밝혀 달라고 청원도 해 보았단다.

너의 기소장에도 '민청'이란 '민'자도 없단다. 양심이 좀 남아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나 언제 기소되었는지, 어느 날 재판을 하는지 통

지 한 장 받아보지 못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도 놓치고, 뒤늦게 서야 아버지의 친우인 용남진씨가 맡아주셨지만 기록도 보여주지 않고 면회도 허락하지 않아서 항소이유서도 추측으로 요식만 갖춰서 냈다. 그리하여 너는 피고로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지.

네가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어느 익명인에게서 들은 것이 6월 20일이었다. 독방에서 책 한 권 없이 무진 고생한다고. 밥풀로 휴지를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고 묵주를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 아마 몬테크리스트 백작이 그러했겠지. 그 십자가만이 방청할 수 있는 밀폐된 재판—그것도 알지 못하여 가족들이 나오지 못하고 두어 사람만이 참석하였지. 신문기자 하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만 득실거리며 무엇을 그리 적고 있는지.

그러나 학생들의 싱글벙글 농담을 해가며 위축되지 않은 늠름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였다. 너의 소장에는 73년 10월에 김동길 교수와 천마산에 등산간 것에서부터 정월 2일 날 김찬국 학장댁에 세배간 것 등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구치소에 가서 그 높은 벽돌 담 안에 네가 살아 있거니 하고 쳐다보면서 아들 딸을 빼앗긴 어머니들과 서로 위로하고 이야기하며 여름을 보냈단다. 너의 재판 날을 알아보려고 염천을 무릅쓰고 몇번이고 경비하는 헌병들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군법회의소에 갔었지. 그랬더니 8월 초 어느 날 우연히 너의 이름이 나오더라.

첫번째 재판 날 직계부모 중 한 사람이 참관할 수 있다 하여 재판 광경을 보았단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 등 좌우간 화장실에 간 것만 없고 일거일동이 모두 다 국가변란 음모였더구나. 너의 친구 김영준군이 학민이와는 같은 과의 같은 학년이라 날마다 만나는데 왜 어느 날 만난 것만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공부는 않고 매일같이 변란 음모만 했느냐고 말하는데 폭소할 뻔 하였지. 긴급

조치가 발동된 것이 1월 8일인데 왜 73년도에서부터 너절하게 늘어놓았는지. 네가 긴급조치 4호 발효 이전에 예비검속되었다는 증명을 받아놓고 4호나 불고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다 기각하여 버리더라.

그러나 나는 너의 진술을 똑똑히 들었다. 경찰, 검찰 등 몇 군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인정만 하라고 강요당하였다는 진술 말이다. 이를 부인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없이 다 말하였는데 왜 내 말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조작된 문서만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고 하였지. 나라 위해 민주주의 해야 한다고, 유신체제는 독재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고, 그 신념에 변함이 없으니 조작재판 받으나 마나라고 하며 애국가를 부르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히고 질질 끌려 나가며 절규하던 그 소리 그 모습 똑똑히 듣고 보았단다. 나는 너의 동료 학생들의 외치는 소리를 또 들었다.

세종대왕같은 성군은 많은 선비를 등용해서 널리 의견을 들어 좋은 정치를 하였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주시대에도 시골 무명선비가 상소를 하여서 왕의 잘못을 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하물며 민주국가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느냐고. 그것이 진리일진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또 우리는 애국하기 위해 민주질서를 회복하라고 외쳤고, 재판장님도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싸움을 하셨는데, 나라 사랑하기는 재판장님이나 우리나 매일반인데 왜 재판장님은 높은 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왜 쇠고랑을 차야만 합니까? 강제로 끌려온 것이지 심판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외치더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래도 대법원에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인 판사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는 절차상 필요하다니 나온 것이지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것은 아니니 재판을 거부하노라고.

대학에서 공부할 적에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진리를 탐구하였는데, 이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에 다시 나가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겠다고. 어느 학생은 시를 한 수 읊겠다고 하니 재판정이 법정이라 안된다고 금하는 것을 기어이 송시하던 그 우렁찬 목소리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이철 군은 우리는 반정부이면 반정부이지 반국가가 아니며, 더구나 반국가 단체일 수는 없다, 또한 단체로서 형성되지도 않았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은 좋으나 빨갱이의 누명만은 벗겨달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 아버지는 무한히 울었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단다. 이 민족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줄만 알았더니 장래 싹수가 보이니 슬퍼하지만 말자고 가족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위로했단다.

박형규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목사로서 나라 위한 기도를 끊은 적은 없습니다. 법관, 군대, 대통령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직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기 어렵고 하느님이 힘을 주셔야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성한 직권이 오용되고 남용될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학생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도와주었고, 이런 학생들의 희생과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움직인 것은 3 · 1정신과 4 · 19정신이 움직인 것이지, 남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

해위 윤보선 선생은 "학생들에게 공산당이란 죄목은 사실이 아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다.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죄를 대신 쓰고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서는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를 사형장에 끌고 간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지학순 주교님은 「양심선언」에서, ①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②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기본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의 긴급명령이라는 단순한 형식만 가지고 짓밟는 것이다. 이래서는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③ 본인이 위반했다고 기소된 소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이다. 이것들은 소위 유신헌법의 개정을 청원이나 건의를 금지하고, 그러한 개정운동이 있었다는 것의 보도까지 금지하며, 소위 대통령긴급조치를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의사조차 못하게 하여,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종신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식이다.

④ 본인이 범했다고 그들이 기소한 또 하나의 죄목인 내란 선동은 본인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올바로 가졌기 때문에 억압받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갖다붙인 조작된 죄목이다.

⑤ 본인을 재판하겠다는 소인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그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는 꼭두각시이다, 라고 갈파하셨단다.

변호사들의 변론요지를 간추려 보면, 한결같이 군법 13조에 규정한 비상명령권은 국가내 일부에 공공 안녕질서가 극도로 문란되었을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 발동하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성을 띤 것이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조치 자체만으로서 처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소멸되어 1호, 4호가

해제된 이 마당에 '차안의 부재'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구치함은 명분이 없으므로 당연히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청학련'이란 실존하지도 않았고, 조직하려 하지도 않은 것이고, 피고들은 정부전복, 폭력혁명 등의 용어를 입에 올린 일도 없고, 다만 민주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학생운동으로서의 의사표시를 하려 한 것인데,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것은 만부당하다는 것이었다.

4·19와 같은 상태로 몰고 가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지만 4·19에는 3·15선거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하자고 외쳤고, 발포살인한 뚜렷한 사실에 기인한 의거이다. 이박사가 자진 하야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전복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기들 데모로 정부가 넘어갈 것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정권 수립 운운이란 꿈에도 없었다. 이민족이 국권을 탈취하여 통치하던 때인 1919년 3·1운동도 국권문란이나 국가변란 내지 내란으로 판결되지 않았고, 소요죄로 판결되었다. 그때에도 최고형은 12년에 머물었는데. 아무리 가혹하게 보아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 소요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사형, 무기, 20년형이 웬말인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조작된 조서에 억지로 엄지손가락을 눌렀다고 여러 피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4호가 발효되기 이전에 구속된 사람에게 불고지죄라니 어찌된 영문이냐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곤 하더라.

"피고인들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역사상 집권층에 반대하는 수많은 항의가 재판을 받았으나 그 집권층의 재판 자체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역사 앞에서 마땅한 양심적인 판결을 기원합니다"라고.

나는 기원하고 있다. 아버지는 네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 않기

를 희망하였지. 재판을 받아보았자 그것이 그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 최고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너의 편지에 학생들의 문제는 개개인의 법정투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때든지 귀결날 것이므로 치사한 재판 번거롭게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과 심사숙고한 끝에 집단으로 포기하였지만 의지는 더욱 강하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매사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단다.

집권층은 소수의 학생과 종교인이 사회를 오도한다고 하지만, 요사이는 소수가 다수로 변하였지. 기도회나 강연회도 교회마다 하도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단다. 소수가 무서워서 15년씩이나 가두려는 그 사람들이 이 늘어만 가는 다수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괴상한 일이 자꾸만 생긴단다. 광주에서, 대구에서 상이군경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정치인이 봉변을 당하고 연금되고 당사가 점거당하고 한단다. 학생들 데모는 한 발자욱도 교문 밖엘 못나서는데 관권이 개입 안되고도 이러한 희한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동아일보」는 광고주들이 압력에 의해(?) 광고청약을 취소하여서 백지광고난이 생기곤 한단다. 함석헌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권력에 아부만 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신문은 국민이 일체 사보지 말아서 신문사가 두어 개 없어져야 끝장이 난다"고 하셨지. 신구 각 교회에서는 국민에게 「동아일보」를 구독하기를 호소하였고, 세계의 이목은 「동아」로 집중되고 있으며, 각처에 「동아」 돕기운동이 생겼단다.

만일 네가 15년형을 다 마치고 나온다면 그 안에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네가 나오는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네가 있는 감옥으로 자원하여 가서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와 종로 복판을 누비며 데모도 해보았으나 겨우 시립병원에 연금당했다가

곧 풀려나오고 말았다. 너는 원치 않는 옥중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감옥에 가기도 어렵구나.

나는 명동성당에서 수천 신도와 애국시민 앞에서 외쳤다. 민주주의를 하자고 학생들이 말한 것이 무기, 20년, 15년형이라면 74억이나 부정대부 해먹은 사람이나 보석을 밀수한 보석부인들은 얼마나 형을 받아야 합당하냐 말이다. 아마 그 사람들은 서너 번씩 사형을 받아도 오히려 죄가 남겠지.

집권층은 구속인사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내일이라도 석방한다고 하지만, 반성할 사람은 구속자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만을 연장하려 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는 집권층 그들 자신이고, 자숙해야 할 사람들은 구속자 가족들이 아니라 집권층과 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아니겠느냐.

미국에서 우리의 인권이 회복되면 2천만 달러를 더 원조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우방간에 이런 처우를 당하고도 창피하지도 않은지. 두 일본인은 한 · 일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석방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잠자코나 있어야 할 터인데……. 남의 귀여운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을 올바른 판단으로 무조건 석방하는 도량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라.

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민주정치가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 너희들의 석방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주장이 이 땅 위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진리가 승리할 그날까지 손에 손을 잡고 기다리련다.